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계산업 발전방향

박 중 근

농림수산부 중소기축과 계장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제는 '8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결과 연평균 8.8%라는 매우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국민1인당 GNP도 4천불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무역규모도 매년 크게 늘어 '88년에는 1천억불을 넘어서고 국제수지도 '86년부터 흑자를 나타내는 등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분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89년 6월부터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위원회(BOP)에서는 '89. 10. 27일 한국을 18조 B항 적용국가에서 졸업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국제수지를 이유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싫든간에 향후 7년 이내인 '97년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어 축산업 특히 양계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여 우리의 수입개방 실태와 전망 그리고 이에따른 보완대책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2.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현황과 향후전망

지난 '83년이래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83년 80.4%에서 '90년 현재 96.4%수준까지 이르고 '91년까지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243개를 포함하면 수입자유화율이 전체적으로는 97.3%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있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금년 현재 80.7%에서 '91년에는 84.9%가 되고 축산물은 62.9에서 67.1%에 머물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시장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이 더 세계 밀려올 전망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 특히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

개방압력을 받아 많은 품목의 농축산물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90년대의 농축산물 개방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제한되고 있는 농축산물이 대부분 영세농가가 생산하는 쌀과 소, 돼지, 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월에 GATT의 BOP 졸업결정후에 그나마 8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받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92~'94년까지와 '95~'97년까지 각각 3년에 걸쳐 1, 2차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전년도 3월말까지 GATT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어 잔존 수입제한품목의 개방순서를 정해야 하는바 이는 '89년4월에 발표된 '89~'91년까지 3개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품목 선정시와 같이

첫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미하여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

둘째, 외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품목

셋째, 운송과 보관이 부적합하여 국제간교역이 어려운 품목

넷째,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국민생활에 대한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품목

다섯째,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경영비 절감에 기여

표 1. 가금산물의 수입제도

기수입자유화품목	'89-'91수입자유화예시품목	수입제한품목
종계이외의 닭(185g 이하)	종계이외의 닭(185g 이상)	종계, 종란
오리, 칠면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신선, 냉장, 냉동, 절단한 것, 절단하지 않은 것),	닭고기(신선, 냉장, 냉동, 절단한 것, 절단하지 않은 것), 칠면조조
기타가금류의 설육, 계란, 전란분, 난황분, 난백	계, 절단하지 않은 것), 칠면조조	전란액, 난황액 기타 가금고기
칠면조조제식료품(통조림) 기타	제식료품(통조림 제외)	조제식료품(통조림 제외)
가금고기		
조제식료품(통조림)		

하는 품목 등으로 선정하여 가급적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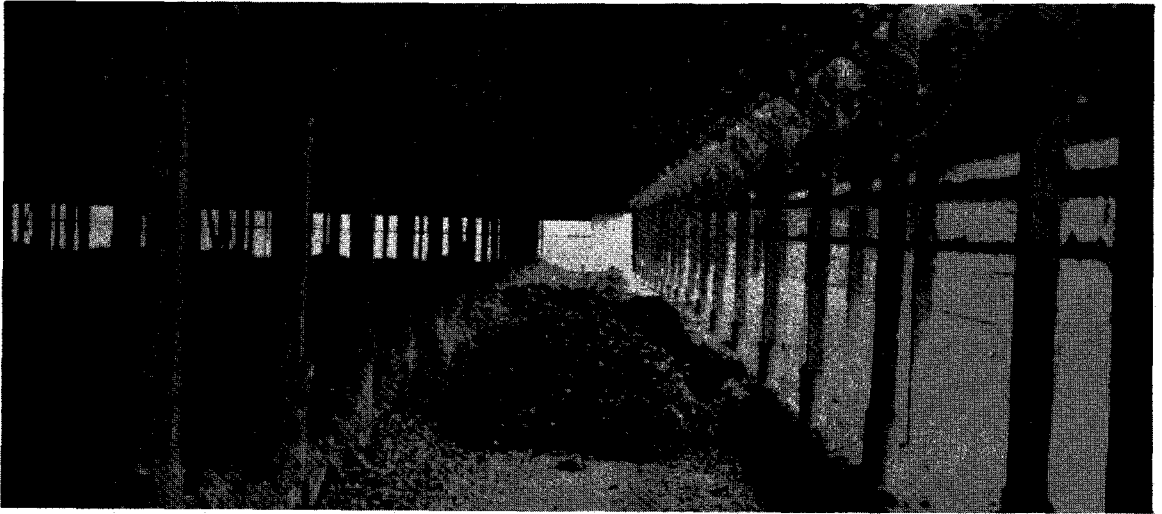
3. '90년대 양계산업의 발전방향

가.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타축산업에 비해 기술 및 경영면에서 선두역할을 해왔고 양계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은 물론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 유관분야 모두가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하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양계업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타축산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안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문제점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수급조절기능의 미확립이다. 그동안 양계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분이 나름대로 수요에 맞는 적정량을 생산함으로써 생산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종계·부화업체와 실용계 사육농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한 구심점 없이 자기분야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연간 또는 계절별 가격등락에 대처하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하나의 안정된 산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양계산물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단계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축산분야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양계산물이 생산농가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집상, 중간상 등 여러단계를 거치므로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생산물이 과잉시에는 소비자 가격이 신속하게 낮아져 소비확대를 조장하여 빠른 시일에 회복되어야 하고 과소생산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생산자가 수취하여 생산의욕



을 조장함으로써 수요에 알맞는 생산이 유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의 과잉과 소 생산시 가격의 탄력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계란과 닭고기 등 양계산물의 소비증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란과 닭고기의 경우 1인당 소비량이 '81년도에 각각 14개와 2.3kg이던 것이 '89년에는 163개와 3.7kg으로 143%와 161%에 증가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은 206%인 것을 볼 때 타육류에 비해 소비증가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육류소비 패턴을 보더라도 쇠고기 등 타육류에 비해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월등히 높아서 '90년에는 가금육의 소비량이 쇠고기 소비량보다 앞설 것이라는 미농무성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색육(Red meat) 보다는 백색육(White meat)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임에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양계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홍보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넷째, 그동안 종계개량과 사양관리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왔음에도 국제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상당한 수량의 종계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양계업은 사양관리면이나 경영측면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나 이에 대한 구조개선을 하기 보다는 목전의 가격등락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 수입개방과 관련한 양계산업의 발전방향

전술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우리양계분야 내부의 문제점으로서 양계업에 직접 종사하는 분은 물론 관련단체, 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모든 분야가 일정한 구심점 아래 목표를 세워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해 나가면 시일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충분히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수입자유화가 우리의 현실로 한층 다가와 있고 향후 수년 이내에 양계산물을 개방해야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향후 양계산업 발전방향을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위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는 크게 제도적인 면과 예산지원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제도적인 면으로서는, 첫째, 사료원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내지는 인하하고 소득세법상 부업규모인 소득세 면세점을 현행 1만수 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양계농가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닭계열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양계주산 지별 양계업종조합을 설립하여 생산자단체를 육성함으로써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조금제도의 도입추진 등으로 수급조절기능 및 소비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셋째, 닭고기·계란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검역 및 위생규정을 강화하여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입과다로 국내 양계업에 대한 피해우려시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할당관세 등 긴급관세의 적용으로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지원면으로는 첫째, 시설자동화 및 축사시

설개선자금의 지원으로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 양계업종조합 및 계열화생산 사업체에 대한 수급조절자금 지원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고,

셋째, 계란집하장 등 양계산물공판장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계란가공공장 설치사업 지원과 도계장시설 근대화를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보다 상품성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증가의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우리나라 양계업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양계산물의 수요증가와 가공제품 수요의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일본이라는 커다란 소비시장이 이웃해 있어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사료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육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급조절기능의 미약, 그리고 전통적인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GATT의 BOP 결정에 따라 향후 7년이내에 양계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보호정책만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는 생산원가 절감 및 단위당 생산성의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외국 양계산물의 수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가서는 양계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켜 일본 등지의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양계**

표 2. '90년도 양계분야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장	지원금액	비 고
○양계산물 수급조절자금	3,261	
- 계란	(741)	양계조합용자
- 닭고기	(2,520)	육계계열화사업체용자
○축사시설개선사업자금 (25개소)	5,250	닭·돼지사육농가 용자(닭 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 우선지원)
○계란집하장설치사업 (4개소)	1,420	축협조합 또는 산단계열화사업체 용자
○계란직매장설치사업 (2개소)	480	양계조합용자
○닭능력검정사업	20	(사)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 운영비 보조
계	10,431	